

제13회 한일미래포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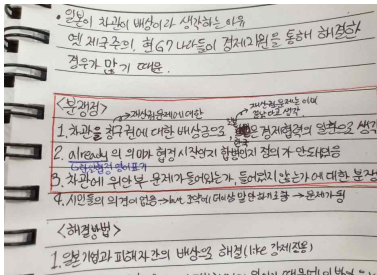
홍익대학교 3학년 정소윤

제13회 한일미래포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팀에서 토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학생들과 직접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일본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 사이 의견차가 심하면 어떡하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싸우면 어떡하지 등의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토의할 친구들을 만나고 나니 걱정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함께 토의를 하게 된 친구들은 한국인만큼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였으며, 대부분 한국에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이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견도 한국인 토의 팀과 동일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큰 문제없이 토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첫 날은 각자 위안부에 대해 조사해 온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는 1965년 한일조약에 대해 토의하기로 사전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정보 교환 후에는 한일조약에 대한 문제점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 등을 토의하였습니다. 한일조약에 관한 분쟁 점으로는 첫째, 차관이 경제 협력의 일환인지, 청구권에 대한 배상금을 포함하는지. 둘째, 영어로 된

▲ 열심히 토의하는 모습 조약에서 already의 의미가 합병부터인지, 협정 시작부터인지. 셋째, 차관에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등이 있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국민들, 특히 피해자들과 소통을 해야 하며, 독일식의 사과가 아닌 일본식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식의 사과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보여 주고, 증거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발표의 목차도 짜 두었습니다. 목차는 일본군 위안부의 정의 - 종군위안부로 부르지 않는 이유 - 1965년 한일조약 설명 - 분쟁 점 - 해결방법 - 결론으로 짚습니다.



둘째 날에는 미리 토의해 두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며 내용을 구체화 시켰고, 이 내용들을 목차에 맞게 편집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발표에 사용할 PPT와 대본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내용 구체화와 목차 구성이 빠르게 끝났기 때문에 PPT와 대본 또한 빠르게 끝낼 것이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과는 다르게 PPT와 발표 대본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게 되어 끝나기로 예정됐던 시간인 오후 9시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10시에는 센터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토의 내용 정리 어쩔 수 없이 번역은 통역사로 활동해 주신 미래씨가, PPT 통합은 PPT 템플릿을 제작해 주었던 하야토씨가 각자 숙소에서 마무리하여 보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발표 대본을 뽑아 센터로 향했습니다. 저희 조는 3번째로 발표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팀과 두 번째 팀의 발표 후 질문 시간에 다들 난이도 있는 어려운 질문들을 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서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등의 걱정을 하며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던 중간에 PPT에 일본어 표기가 되지 않은 페이지가 존재하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하야토씨가 번역된 PPT와 번역이 되지 않은 PPT를 헛갈려

나온 실수인 것 같았습니다. 큰 실수였지만 다행히 모두들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어 무사히 발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끝낸 후 예상과 동일하게 어려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팀의 분위기는 어땠는가의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해 일본군 위안부와 정신대를 구별하여 보상을 할 방법 등의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있을 때 일본어를 유창하게 잘 하던 성철씨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 하던 아이리씨가 질문들에 막힘없이 대답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임기응변 덕분에 질문 시간도 무사히 끝내게 되었습니다.



2박3일의 시간이 모두 흘러간 후, 저희 토론 팀은 서로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토의하기 전에는 그 누구와도 친해지지 못하고 삭막한 대화만 할 것 같았던 제 예상은 빛나가 버렸습니다. 2박3일간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듣

▲숙소가기 전에 조별사진
고, 함께 발표를 준비해 나가면서 정이 깊게 들어버린 것입니다. 저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한일미래포럼을 참가하여 많은 것을 알아가고,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일본인 학생들이 모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와 정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둘째, 잊지 못할 추억들과 값진 경험들. 셋째, 소중한 친구들과 인연들. 첫 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포럼에 참가하여 이번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질문들에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하며, 실수 없이 발표를 해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 날 단체사진



▲ 쿠시카츠를 먹은 후에 단체사진



▲ 토의하던 중간에 사진 한 장



▲ 쿠시카츠를 먹으며



▲ 규카츠를 먹으며



▲ 카페에서



▲ 나의 마니또 미래